

## 올림말분과

남북의 올림말분과에서는 《겨레말큰사전》에 신기 위한 올림말을 선정하기 위하여 2006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남측 《표준국어대사전》과 북측 《조선말대사전》의 올림말을 전수 검토하였다. 그간 23차례의 올림말분과회의를 개최하고 1, 2, 3차 올림말 후보 목록 작성 과정을 거친 끝에 현재 23만여 개의 기존올림말을 선별해 두고 있다. 지금은 원고 집필 및 교열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올림말에 대한 심사를 남측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용구 4,345개, 속담 11,003개를 1차로 선별해 두고 있다. 추후 남북 올림말분과회의가 개최되면 원고 집필 및 교열 과정 등에서 제기된 올림말과 관용구 및 속담 등에 대한 남북 올림말분과의 공동 심사가 진행된다.

### . 올림말 선정 원칙

공동회의에서 합의한 <《겨레말큰사전》 올림말 선정 작업요강>은 다음과 같다.

#### 《겨레말큰사전》 올림말 선정 작업요강

##### 1. 두 사전에서의 올림말 선정을 위한 작업의 일반 사항

- ① 두 사전에서 올림말을 선정하는 작업은 《겨레말큰사전》의 성격과 편찬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일로서 겨레말 통일사전의 기본 내용과 틀을 짓는 기초 작업이다.
- ② 두 사전에서 올림말을 선정하는 작업은 《겨레말큰사전》편찬의 선행 과정으로서 두 사전의 맥을 이어 주고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 ③ 작업의 진행은 남과 북이 각각 두 사전의 올림말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문제점을 찾아, 먼저 공통적인 올림말을 확정하고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수 있는 것과 올릴 수 없는 것, 토의하여 해결할 것들을 가려낸다. 다음으로 두 사전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 중에서 쉽게 단일화할 수 있는 것과 토의를 더 해야 할 어휘를 갈라내며, 《겨레말큰사전》에 올리지 않을 어휘를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 ④ 철자법과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로 생긴, 표기 형태가 다른 두 사전의 올림말들은 표기 통일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상관하지 않고 아직은 공통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 2. 두 사전에서의 올림말 선정을 위한 작업 내용

- ① 두 사전에 다 같이 올라 있는 어휘의 처리  
《조선말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 온 대부분의 올림말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처리한다.

■ 첫째 부류 :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어휘 부류

고유어:

동사: 가다, 오다, 뛰다, 기다, 꼬다

형용사: 높다, 낮다, 희다, 붉다, 달다

부사: 펍, 잘, 꼭, 부르르, 기어이

수사: 하나, 둘, 셋

대명사: 나, 너, 우리

관형사: 온갖, 모든

감탄사: 아, 아뽀사

명사: 집, 칼, 밥, 국, 고양이, 개, 돼지, 가람, 노고지리, 사례

한자어: 학교, 공업, 분과회, 갯도, 공장, 연구소, 분해, 조립, 구축함, 항공모함, 기병총, 화학, 수학, 역학(력학), 생물학, 주체사상, 정치경제학 등

※ 괄호 안 표기 형태는 북에서 쓰고 있는 형태이다.

■ 둘째 부류 : <<겨레말큰사전>>에 올리지 않을 어휘 부류

두 사전에 공통적으로 올라 있지만 옛 한문책이나 국한문혼용체에서나 쓰였을 정도로 어려운 한자어는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실례: 도두(渡頭), 도진(渡津), 도치(島置), 목석난부(木石難傳) 등

② 어느 한쪽 사전에만 올라 있는 어휘의 처리

한쪽 사전에만 올라 있는 어휘는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올리든가 빼든가 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어휘 부류로 나누어 처리한다.

■ 첫째 부류: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어휘 부류

- 과학 기술 발전과 관련한 어휘

실례: 하드웨어, 게놈분석, 게놈설, 다매체, 나노미터(나노메터) 인지심리학 등

- 역사 제도어와 관련한 어휘

실례: 예부/례부(禮部)

- 고유어 방언, 은어

실례: 구살머리쩍다, 집난이, 가사하다(함북 - 굼뜨다), 오레미, 오슬기(솟), 오빠시(함남 - 올빼미) 강아지(담배, 간수), 꼭돈 등

■ 둘째 부류: <<겨레말큰사전>>에 올리지 않을 어휘 부류

- 좁은 범위에서만 쓰이는 전문 용어인 외래어

실례: 스피릿(spirit), 스피릿검(spirit gum), 스피어민트(spearmint)

- 다듬은말이 있거나 쉽게 다듬을 수 있는 외래어

실례: 싱커페이션(syncop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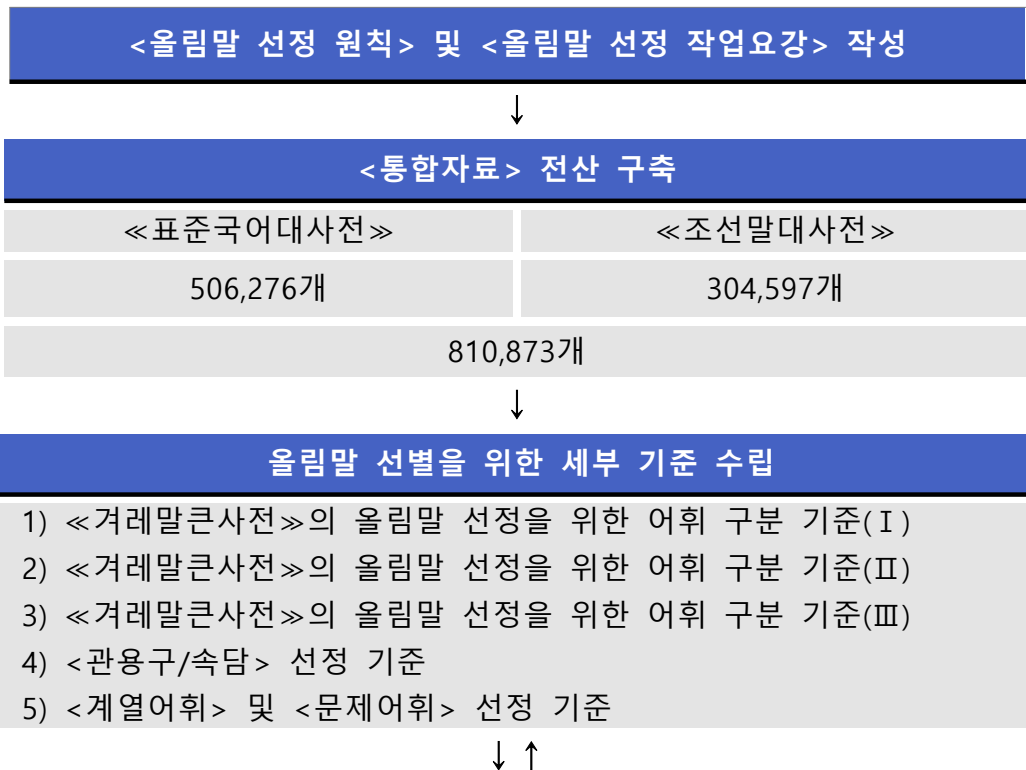
- 각종 고유명사(인명, 지명, 사건명, 국명, 종족명, 기관명, 단체명 등)  
 실례: 스탕달, 정약용, 장개석, 베이징, 벽동군, 뉴욕, 노르망디상륙작전 등  
 ※ 일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고유명사는 남북이 합의하여 올린다.  
 실례: 관동, 호남, 관북
- 고어와 이두 어휘  
 실례: 브라(주라), 뷔디집(바디집), 브라다(바라보다), 뷔람ㅅ벽(벽), 뷔랍다(가렵다),  
 뇨르(나루), 뇨룻비(나룻배), 뇨므새(남새), 뇨지(낮추), 뇨죿ㅎ다(나직하다) 등
- ③ 다듬은말, 관련 어휘, 체계성을 띤 어휘의 처리
  - 다듬은말을 사전에 올릴 때는 본래말과 함께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실례: 노크 - 손기척, 좌석표 - 자리표(운수), 비유량 - 젓짜는량(축산), 뇨혈 - 피  
 오줌(의학)
  - 다듬은말이 한때 쓰였으나 다른 말로 고쳐 다듬어졌으면 다시 고친 말을 올리도록 한다.  
 실례: 표피효과 - 겉면효과(×겉층효과) (체신), 주유 - 기름주기(×기름치기) (기계),  
 내륜 - 속바퀴(×바퀴속) (운수), 과적재 - 초과심기(×지내심기) (철도운수),  
 (생물), 괴철 - 덩이철(×덩이쇠) (금속) 등  
 ※ 괄호 안의 ×는 다듬은말의 변화 상태를 보여 주는 것임. 연락 관계로 맺어지는  
 관련 어휘가 올림말로 오르지 않은 경우 그것을 올림말로 처리한다.
  - 《(다듬은말로)》, 부호《=》로 보냈으나 사전에 없는 올림말의 처리  
 모두 부호《=》로 보내고, 보낸 올림말을 기본올림말로 처리한다.  
 실례: 파면 = 물결면, 식사안내표 = 차림표, 세차장 = 차세척장(×차씻는곳), 동  
 기유 = 겨울용기름(×겨울기름), 별실 = 탄방, 풍습 = 습비, 이중타격 = 두  
 번치기(×거듭치기), 풍가 = 중풍환자
  - 부호《→》로 보냈으나 사전에 없는 올림말의 처리  
 실례: 갈피 → 칩껍질, 건치 → 말린평고기, 고화 → 옛그림, 공휴일 → 쉬는날,  
 구지 → 옛땅, 광언 → 미친소리, 대아 → 큰어금이, 빙층 → 얼음층, 종빈  
 돈 → 종자암돼지, 연니 → 무른감탕  
 ※ 사전에 없는 올림말은 따로 올려 처리한다.
  - 부호《→》로 보낸 올림말의 처리  
 올림말을 따져서 보내는 말이 방언이면 없애고 기타의 것은 부호《→》로 보낸다.  
 실례: 가리탕 → 갈비탕, 가불간 → 가부간, 간조르다 → 간중그리다, 배지개 → 배  
 지기, 발가집다 → 발그집다, 비끼다 → 비키다, 새다리 → 가위다리  
 ※ 위와 같은 실례는 방언을 따로 올리기 때문에 없앤다.
  - 체계성을 띤 어휘들에서 일부 빠진 어휘는 거두어서 올림말로 삼는다.  
 실례: 상행결장(하행결장, 횡행결장은 올라 있음), 외발서기, 뒤발서기, 비껴서기,  
 구부려 준비서기, 모아준비서기(나란히서기, 교차서기, 주춤서기는 올라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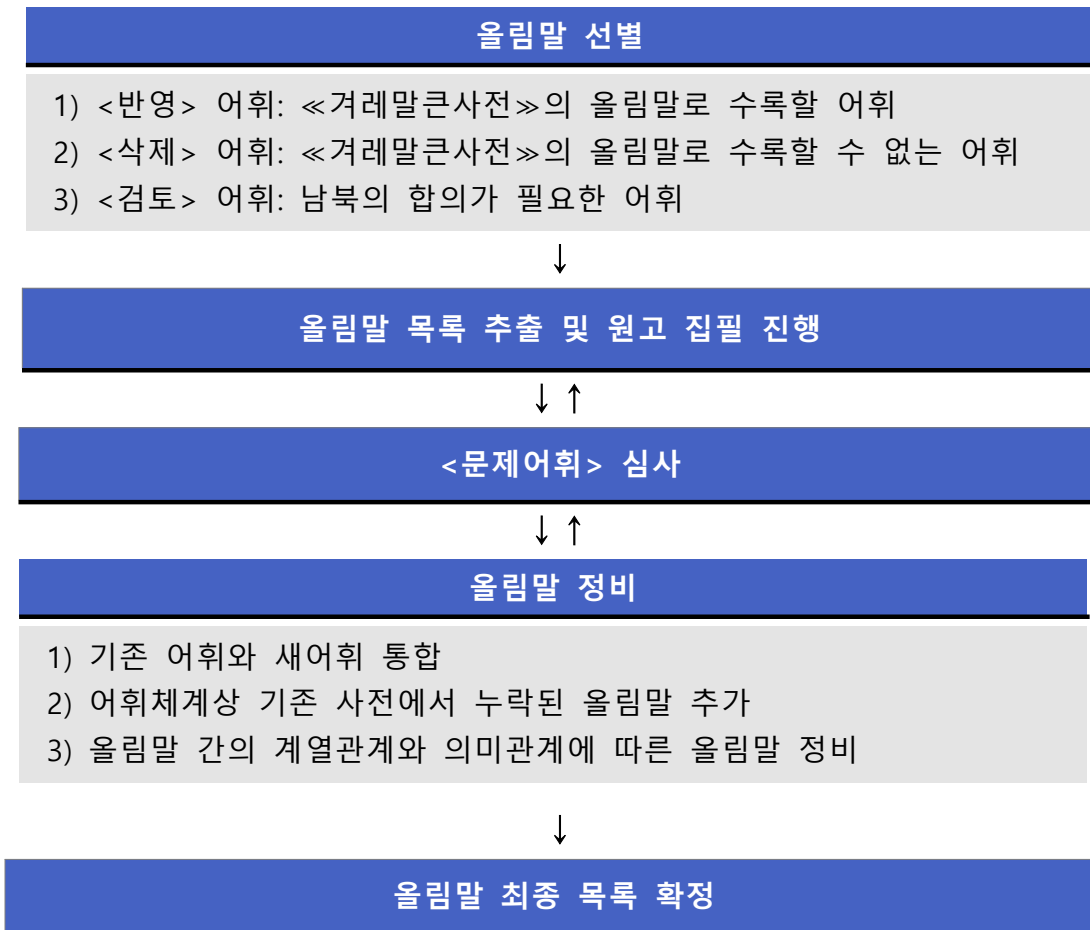
- ④ 남과 북의 제도의 차이와 언어생활 습관으로 견해가 다른 일부 올림말 선정에 대하여는 거듭 협의와 토론을 거쳐 해결한다.
- ⑤ 단어 이외의 올림말의 종류
  - 단어가 아니더라도 올림말로 올릴 가치가 있는 것들은 수록한다.
  - 가) 접사, 어미를 수록한다.
  - 나) 단어보다 큰 단위(속담, 관용구)도 수록한다.

3. 두 사전에서의 올림말 선정 작업 방식과 계획

- ① 작업 방식
  - 컴퓨터상에서 기계적으로 일치하는 어휘를 먼저 선정하고 그것을 분류, 검토하며 일치하지 않는 어휘에 대한 분류 선정 작업은 따로 진행한다.
  - 올림말 선정 작업은 두 가지 어휘 부류로 나누어 진행하나 그 중간에 위치하는 어휘 부류는 각 조에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협의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휘는 별도로 협의·처리한다.
  - 두 사전에서 취한 올림말은 조사한 문헌 및 현장 어휘와 일원화하여 남과 북이 올림말 확정 작업에 들어간다.
- ② 작업 계획
  - 작업 기간은 2006년 ~ 2008년으로 한다.

2. 올림말 선정 작업 방식





### 3. 기존올림말<sup>1)</sup> 선별 현황(2017. 12.)

① 선별 대상 올림말		② <통합자료>	③ <겨레말큰사전>
810,873	506,276 (표준국어대사전)	547,825	230,228
	304,597 (조선말대사전)		

- ※ ① 선별 대상 올림말 :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의 올림말 총수  
 ② <통합자료> : 위 두 개 사전을 새로 정비하여 구축한 자료의 올림말 총수  
 ③ ≪겨레말큰사전> : 위 ②의 올림말을 남북이 함께 전수 검토하여 ≪겨레말큰사전>에 신기로 합의한 올림말 총수

1) 남측의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북측의 ≪조선말대사전(1992)≫에 실린 올림말. 1차 선별이 완료된 관용구(4,345개)와 속담(11,003개)은 포함하지 않았음.

## 집필분과

### 1.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

남북은 제2차 공동회의에서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을 합의하였다. 이 요강에는 뜻풀이 방식과 속구조, 작업 방식과 완성 형식 등에 대한 큰 틀이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

##### • 사전의 뜻풀이

- ① 언어학적인 뜻풀이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전문용어를 비롯한 일부 올림말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적인 뜻풀이 방식을 적용한다.
- ② 뜻풀이 문장 구성에서는 어떤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보다 친절하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 ③ 될 수 있는 한 단어의 말뜻이나 어원 및 유래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④ 올림말에서는 발음, 원어, 문법정보, 뜻풀이, 용례, 관련어 등의 폭넓은 정보를 주되 남과 북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 • 작업 방식과 제품의 완성 형식

- ① 남과 북의 공동편찬위원회는 각기 자기 산하에 3~5개의 작업조를 구성하여 사전 편찬 사업을 밀고 나간다.
- ② 공동편찬위원회는 사전 편찬요강과 작업요강들의 심의, 사전 초고 심사 검토, 사전 편찬과 관련한 국제 토론회 조직, 매개 작업조에서 제기된 학술적인 문제들을 심의 결정하며, 작업조에서는 작업요강 작성과 자료 조사, 초고 집필 등 사전 편찬 작업을 직접 집행한다.
- ③ 남은 《표준국어대사전》, 북은 《조선말대사전》을 모체로 제각기 올림말 선정과 뜻풀이 작업, 새말 보충 작업을 진행한다.
- ④ 언어규범의 남북 단일화 문제와 사전 원고 집필에서 생기는 언어학적인 문제는 양측 부문별 작업조(언어규범 단일화조, 원고 집필조)들이 편찬위원회 모임과는 따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완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⑤ 남과 북에서 제각기 만든 《겨레말큰사전》의 원고를 합쳐 완성할 때에는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단계적으로 편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편집 완성한다.
- ⑥ 완성된 원고는 남과 북의 합의 아래에서만 출판할 수 있으며 합의된 원고는 표현 하나도 자의로 고칠 수 없다.

## 2. 집필분과 업무 개요

기존 올림말 집필·교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림말분과에서 선별한 올림말에 대한 집필과 교열</li> </ul>
원고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측 원고에 대한 검토안 작성</li> <li>■ 상대측 원고 검토안에 대한 재검토안 작성</li> <li>■ 남북공동집필회의에서 협의하여 원고 확정</li> </ul>
<종합집필요강>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종합집필요강&gt; 작성 및 수정·보완</li> <li>■ 집필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연구</li> </ul>
집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필자, 교열자 연수</li> <li>■ 집필·교열 원고 및 목록 관리</li> </ul>

## 3. <종합집필요강> 작성

### 가. 목적

- 《겨레말큰사전》의 구조 및 집필 내용에 대한 체계성·통일성 확보
- 개별 어휘의 뜻풀이에서 남북 간의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준 마련
- 남북 사전 편찬 작업의 효율적 진행

### 나 진행 상황 개요

- 제9차 공동회의에서 남측은 <<겨레말큰사전>> 뜻풀이 일반요강에 대한 의견서>를, 북측은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집필요강>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집필요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제9차~제18차 공동회의(총 10회), 제1차 집필분과 실무회의(총 1회)를 통해 남북이 본집필에 공동으로 쓸 <종합집필요강>을 마련함.
- 올림말 풀이의 속구조 각 항(올림말의 표기와 배열, 발음, 활용, 원어, 품사, 지역어, 전문영역, 문법, 뜻풀이, 용례, 관련어, 참고어, 형태분석, 어원, 붙임, 갈래말, 관용구와 속담, 삽화 및 사진)에 대한 집필 방식, 뜻풀이 일반(뜻풀이의 일반원칙·형식·용어, 다의어의 배열 원칙 등), 품사별 뜻풀이 방식, 부호 사용 방식 등을 합의함.
- 현재는 본집필을 진행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추가 사항을 모아서 공동회의가 열릴 때마다 협의하여 수정·보완하고 있음.

#### 다. <<겨레말큰사전>>의 속구조

<<겨레말큰사전>>
올림말 [발음] [활용형] (원어) [품사] 《전문영역》 《문법정보》
뜻풀이 (지역명)    예구   예문
[관련어] [참고어]
[형태분석 및 어원]
[순화]
[불임]
[갈래말]
관용구/속담
[삽화]

### 4. 시범집필

#### 가. 목적

- 본집필 준비
- 실제 집필을 통해 남북 간 집필 내용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조율 방안 모색
- <종합집필요강>의 적용 및 수정·보완 사항 발굴
- 효율적인 집필·검토 방식 모색

#### 나. 진행 상황 개요

남북은 제11차 공동회의에서 본집필에 앞서 대강의 체제를 갖춘 <종합집필요강>을 적용하여 시범집필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제12차 공동회의에서 1차로 같은 올림말 80개를 각각 집필한 시범원고를 교환하였다. 이후 남북은 제16차 공동회의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시범원고를 교환하였다. 또한 남북은 각 측의 시범원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한 ‘검토 의견서’를 교환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에서 차이가 나는 집필 내용이나 형식(뜻풀이 방식, 용례에 쓰이는 말, 기본 올림말 선정 문제, 품사 문제, 인용례 출전을 표시하는 방식 등)에 대한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함으로써 <종합집필요강>을 수정·보완해 왔다. 시범집필 및 검토 의견서 교환 상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12차 공동회의  
(2007년 12월, 금강산)

- 제1차 남측 시범원고 80개 (가격~휘)
- 제1차 북측 시범원고 80개 (가격~휘)



제13차 공동회의 (2008년 2월, 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남측 시범원고 200개 (가<sup>1</sup>~가날프다)</li> <li>• 제2차 북측 시범원고 200개 (ㄱ~가귀대기)</li> <li>• 제1차 북측 시범원고 남측 검토 의견서 (가격~휘)</li> </ul>
제1차 남북 집필분과 실무회의 (2008년 4월, 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차 남측 시범원고 북측 검토 의견서 (가격~휘, 가<sup>1</sup>~가날프다)</li> </ul>
제14차 공동회의 (2008년 5월,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남측 시범원고 500개 (가녁~가뜬히)</li> <li>• 제3차 북측 시범원고 500개 (ㄴ~나무모병)</li> <li>• 제2차 북측 시범원고 남측 검토 의견서 (ㄱ~가귀대기)</li> </ul>
제15차 공동회의 (2008년 10월, 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남측 시범원고 2,000개(가늑골~각석하다)</li> <li>• 제4차 북측 시범원고 2,000개 (나무결인쇄~날찢대다)</li> <li>• 제3차 남측 시범원고 북측 검토 의견서(가녁~가뜬히)</li> <li>• 제3차 북측 시범원고 남측 검토 의견서(ㄴ~나무모병)</li> </ul>
제16차 공동회의 (2008년 12월, 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남측 시범원고 4,000개(각새<sup>1</sup>~감잎, 감자<sup>1</sup>~거칫하다)</li> <li>• 제5차 북측 시범원고 4,000개(남<sup>1</sup>~노랑탕자)</li> <li>• 제4차 남측 시범원고 북측 검토 의견서(가늑골~각석하다)</li> <li>• 제4차 북측 시범원고 남측 검토 의견서(나무결인쇄~날찢대다)</li> </ul>

## 5. 본집필

남북은 제16차 공동회의에서 본집필 일정을 합의하였다. 이는 올림말 선정, <종합 집필요강> 작성, 어문규범 단일화 작업, 새어휘 수집 등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고, 시범집필을 통해 실제 집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일정 정도 해결된 만큼, 본집필에 들어가도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17차 공동회의부터는 기존의 회의 방식과는 달리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외에 따로 집필회의를 열었다. 집필회의는 남북의 원고 집필 실무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집필원고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확정하는 회의이다. 본집필 일정과 집필 배분 상황 및 집필회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일정

- 각 분기별로 남북이 각각 16,000개, 연별로 64,000개의 기존 올림말 집필 및 교차 검토. 4년간 총 256,000개의 기존 올림말을 집필하기로 함.

### 나. 집필 배분 상황 및 검토 방식

집필 올림말 배분 상황	남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북측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전담 집필 항목 배분 상황	남측	의성의태어, 문법형태(토), 언어학 용어, 붙임
	북측	갈래말
검토 방식	제17차 공동회의부터 집필회의를 따로 열어 남북의 실무진이 직접 검토하고 협의하여 원고를 확정하기로 함.	

#### 다. 진행 상황 개요

##### 1) 제1차 집필회의

- 개요: 시범집필원고 13,000여 개를 4개 조가 분담하여 원고 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확정 원고(1차)를 만들.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664개	1,312개	109개	243개

##### 2) 제2차 집필회의

- 개요: 제1차 집필회의에서 검토하지 못한 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들.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9,713개	7,302개	403개	2,008개

##### 3) 제3차 집필회의

- 개요: 제17차 공동회의에서 교환한 집필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들.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6,074개	12,052개	820개	3,202개

4) 제4차 집필회의

- 개요: 제18차 공동회의에서 교환한 집필원고 중 각 측 3,000개의 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듦.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6,094개	5,367개	330개	397개

5) 제5차 집필회의

- 개요: 제18, 19차 공동회의에서 교환한 집필원고 중 각 측 16,208개의 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듦.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6,208개	14,667개	506개	1,035개

6) 제6차 집필회의

- 개요: 제19, 20차 공동회의에서 교환한 집필원고 중 각 측 16,132개의 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듦.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6,132개	13,399개	2,558개	175개

7) 제7차 집필회의

- 개요: 제20, 21차 공동회의에서 교환한 집필원고 중 각 측 17,510개의 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듦.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7,510개	13,402개	3,986개	122개

8) 제8차 집필회의

- 개요: 제21, 22차 공동회의에서 교환한 집필원고 중 각 측 18,098개의 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듦.

- 작업 결과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8,098개	13,835개	4,112개	151개

9) 제9차 집필회의

- 개요: 제22, 23차 공동회의에서 교환한 집필원고 중 각 측 18,098개의 원고를 6개 조가 분담하여 확정 원고(1차)를 만듦.

- 작업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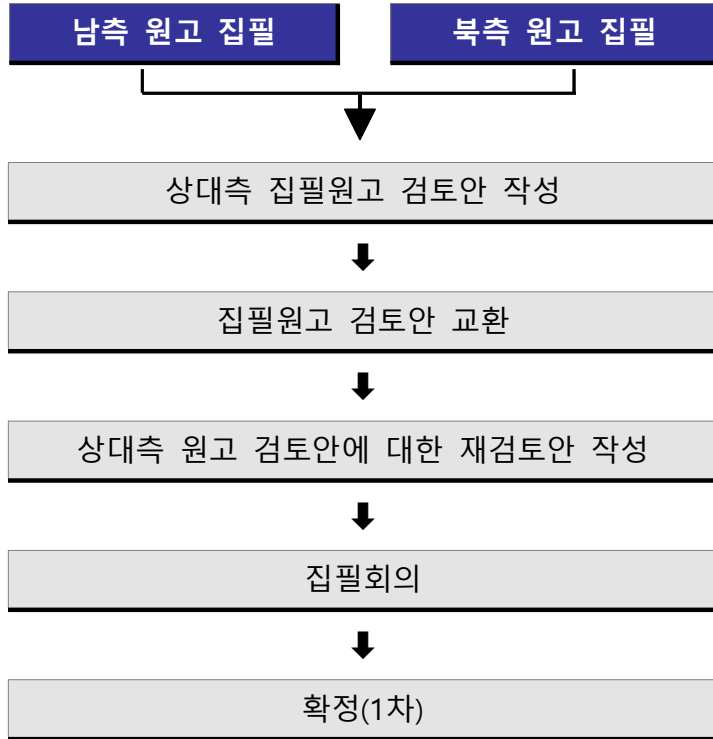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8,075개	15,244개	2,607개	224개

10) 제1~9차 집필회의 작업 결과 종합

검토 원고	확정 원고(1차)		보류 원고
	완성	삭제	
119,568개	96,580개	15,431개	1,931개

☞ 2015년 이후 집필회의가 중단된 상태임.

라. 확정 원고(1차)를 만드는 절차



예시

복측 원고(제1차 집필 원고)

**덤벼들다** [덤벼들어, 덤벼드니] [동](자)  
 덤비며 달려들다. | 그들은 서로 “이놈! 저놈!” 하다가 나중에는 옷통을 벗어부치고 {덤벼들어서} 격투까지 일어났다.《제지공장춘》 / 나는 “아버지.” 라고 부르고 {덤벼들어도} 한번도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아버지》 / 아무리 몸이 고달프더라도 덕호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덤벼들군} 하였다.《인간문제》  
 [덤벼(<덤비-+-여)+들-+-다]

남측 검토안

**덤벼들다** [덤벼들어, 덤벼드니, 덤벼드오] [동](자)  
 ① 덤비며 달려들다. | 그들은 서로 “이놈! 저놈!” 하다가 나중에는 옷통을 벗어부치고 {덤벼들어서} 격투까지 일어났다.《제지공장춘》 / 버스 안팎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자} 그들은 버스 문을 열었고, 우리들은 모두 버스에서 뛰어내렸다.《최인석: 아름다운 나의 귀신》 / 아무리 몸이 고달프더라도 덕호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덤벼들곤} 하였다.(《인간문제》)

②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무턱대고 뛰어들다. | 나는 거의 매번 의욕을 가지고 {덤벼들지만} 참담한 실패를 안고 뒤로 나가떨어지곤 했다.《장석주: 낮선 별에서의 청춘》 / 어쩌면 이번에는 바로 이자가 영순이를 차지하려 {덤벼들지} 모른다.《최인석: 이상한 나라에서 온 스파이》

[덤비-+-어+들-+-다]



### 복측 재검토안

**덤벼들다** [덤벼들어, 덤벼드니, 덤벼드오] [동](자)

① 덤비며 달려들다. | 그들은 서로 “이놈! 저놈!” 하다가 나중에는 웃통을 벗어부치고 {덤벼들어서} 격투까지 일어났다.(《제지공장춘》) / 버스 안팎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자} 그들은 버스 문을 열었고, 우리들은 모두 버스에서 뛰어내렸다.《최인석: 아름다운 나의 귀신》

②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무턱대고 어떤 일에 뛰어들다. | 나는 거의 매번 의욕을 가지고 {덤벼들지만} 참담한 실패를 안고 뒤로 나가떨어지곤 했다.《장석주: 낮선 별에서의 청춘》 / 확신을 못 가진 모험에 서빨리 {덤벼들} 수 없는 자인이었다.(《해동갑이》)

[덤비-+-어+들-+-다]



### 집필회의



### 제1차 합의 원고(이후 교정.교열)

**덤벼들다** [덤벼들어, 덤벼드니, 덤벼드오] [동](자)

① 덤비며 달려들다. | 그들은 서로 “이놈! 저놈!” 하다가 나중에는 웃통을 벗어부치고 {덤벼들어서} 격투까지 일어났다.(《제지공장춘》) / 악이 받칠 대로 받친 그녀는 바람벽에 걸어놓은 빨래방치로 다시금 {덤벼드는} 그 놈의 골통을 내리쳤지요.《정기수: 잔디덮인 푸른 무덤》 / 한번은 뒷산으로 나무를 주우러 갔을 때 암고양이 하나가 나에게 {덤벼든} 적이 있었다.《한창훈: 나는 세상 끝을 산다》

② 앞뒤 가리지 않고 함부로 어떤 일에 뛰어들다. | 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무슨 일에도 {덤벼드는} 사람이다. / 나는 ...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기만 하면 목숨을 내걸고라도 {덤벼들었다}.《김순금: 굴러가는 태양》 /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좋기는 하겠지만, 돈이나 권세에다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덤벼들} 만큼 기수는 매력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손창섭: 치몽》 / 확신을 못 가진 모험에 선빨리 {덤벼들}수 없는 자인이었다.(《해동갑이》)

[덤비-+-어+들-+-다]

## 6. 작업 상황(남측)

### 가. 집필 현황(남측, 2017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집필	비고
2008년도	32,400개	
2009년도	28,700개	
2010년도	28,300개	
2011년도	34,400개	
2012년도	200개	
2013년	1,304개	
2014년	3,857개	
2015년	5,874개	의성의태어
2016년	11,721개	의성의태어 포함
2017년	34,571개	의성의태어, 북측분 배분 목록 포함
계	<b>181,327개*</b>	

\* 올림말 선정에서 '반영'에서 '삭제'로 처리된 올림말도 포함된 개수임.

### 나. 제1차 교열 교정(남측, 2017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교열	비고
2016년	40,000개	
2017년	170,000개	
계	<b>210,000개</b>	

# 새어휘분과

## 1. 《겨레말큰사전》 새어휘 조사 작업요강

남북은 제2차 공동회의에서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을 합의하였다. 이 요강의 ‘사전의 올림말’ 항목에는 새어휘 조사 및 선정 원칙에 대한 큰 틀이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

- 사전의 올림말
  - ③ 방언, 민속 어휘, 동식물 이명, 직업 어휘, 문학 작품에서 뽑은 말, 새말 등 광범위한 분야의 문헌 자료와 생산 현장에서 어휘 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민족 고유의 어휘 표현을 많이 올리도록 한다.

또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백서》의 <《겨레말큰사전》 어휘 조사 작업요강>에는 문헌어, 지역어, 현장어 등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 놓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겨레말큰사전》 어휘 조사 작업요강

- 총론
  - ① 어휘 조사는 지금까지 남과 북의 사전에 실리지 않은 어휘를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남김없이 조사하여 사전에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문헌 조사는 문학 예술작품, 신문, 잡지, 과학 기술 도서, 교과서, 전문어 사전과 동식물지, 광물지, 농사 관련 어휘집, 방언 사전 등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 ③ 문헌 및 현장에서 조사한 어휘 자료에 대해서는 정밀한 뜻풀이와 함께 용례 정보를 제시해 주며, 그 출전과 출처 및 자료 조사지를 정확히 밝힌다.
  - ④ 현장 어휘 조사는 우리 민족이 생활 현장에서 쓰고 있거나 썼던 말 가운데 민족 언어 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어휘를 빠짐없이 조사·보존한다.
  - ⑤ 현장 어휘 조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입말 구술 자료와 어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 2. 새어휘분과 업무 개요

새어휘분과의 업무는 새어휘 조사, 새어휘 집필, 올림말 선정, 자료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새어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어 조사</li> <li>■ 지역어 · 현장어 조사</li> <li>■ 남북 새어휘 교환</li> </ul>
새어휘 집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 새어휘 집필 및 교열</li> <li>■ 북측 새어휘 집필원고 검토 및 교열</li> </ul>
올림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된 새어휘 검토 및 올림말 선정</li> <li>■ &lt;&lt;표준국어대사전&gt;&gt;과 &lt;&lt;조선말대사전&gt;&gt;에 수록된 지역어 선별</li> <li>■ 기존 방언 자료집의 검토 및 올림말 선별</li> </ul>
자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 구입 및 관리</li> <li>■ 자료집 제작</li> <li>■ 말뭉치 정비 및 구축</li> <li>■ 세밀화 작성</li> </ul>

### 3. 새어휘 조사

#### 가. 개요

<<겨레말큰사전>>에서 새어휘는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조선말대사전>>(1992)에 실리지 않은 모든 어휘를 가리킨다. 새어휘 조사는 ‘우리 생활 현장에서 쓰고 있거나 썼던 말 가운데 민족 언어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어휘 · 의미 자료를 현장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조사’(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백서>> 49~50쪽)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새어휘 조사는 10만여 개의 어휘를 새롭게 발굴하여 <<겨레말큰사전>>에 올림으로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겨레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 나. 조사 목적 및 조사 기간

구 분		조사 목적	조사 기간	
문헌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lt;겨레말큰사전&gt;&gt;에 수록될 새어휘 조사</li> </ul>	2006년 ~ 2017년	
지 역 어	국내		2006년 ~ 2010년	
	해외		중국	2006년 ~ 2008년
			카자흐스탄	2008년 9월 ~ 2009년 8월
			일본	2011년 ~ 2012년
	러시아(사할린)		2011년 ~ 2012년	
현장어			2006년 ~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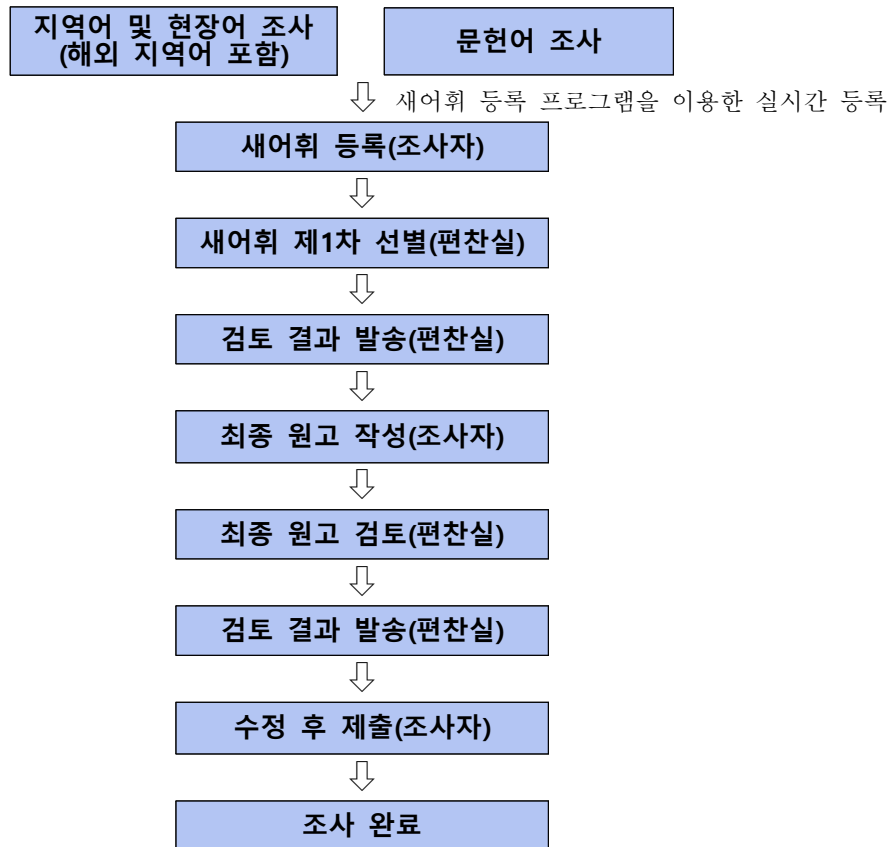
#### 다. 조사 대상 및 조사 지역

구분	조사 대상 및 지역		비고
문헌어	20세기 이후 간행된 문헌 자료		
지역어	국내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충청남북도	
	해외	중국(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카자흐스탄(알마티), 러시아(사할린), 일본(오사카)	
현장어	농기구, 동물, 식물, 염전, 탄광		

#### 라. 새어휘 조사 과정

조사된 새어휘는 <《겨레말큰사전》 새어휘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자가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새어휘 등록 프로그램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된 새어휘가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된 기존 어휘, 다른 조사자의 조사 어휘와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등록된 어휘는 편찬실에서 3회 이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새어휘로 1차 선별된다. 1차 선별된 새어휘는 공동회의를 거쳐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로 최종 선정된다.



#### 마. 새어휘 조사 및 선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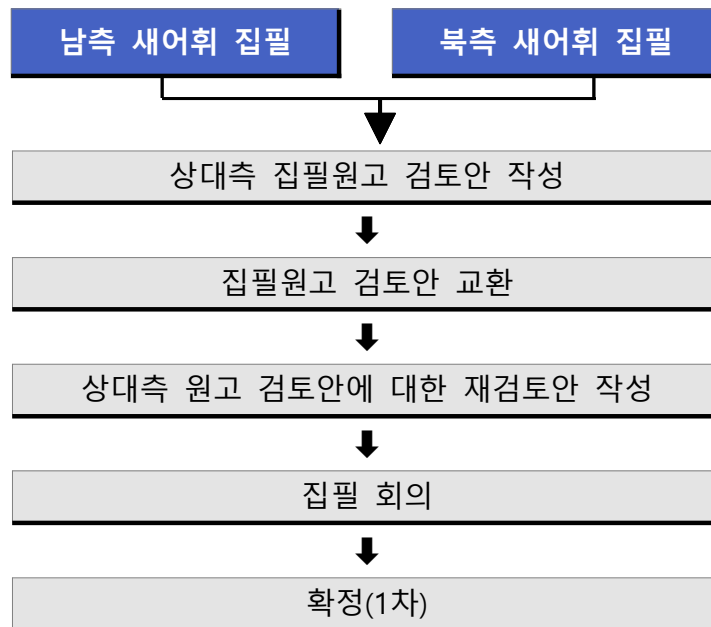
##### 1) 2006년 ~ 2012년

구분	2006~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2017년	계
조사 및 발굴	121,500	6,500	20,900	42,800	38,300	230,000
선정	45,000	1,200	4,600	5,900	33,000	60,000

#### 4. 새어휘 집필

##### 가. 개요

제16~17차 공동회의에서 새어휘 및 기존 사전에 수록된 지역어를 새어휘분과에서 집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새어휘분과에서는 조사된 새어휘와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에 실린 지역어를 <《겨레말큰사전》 종합집필요강>에 준하여 집필하고 있다. 남측에서 조사한 새어휘는 남측에서, 북측에서 조사한 새어휘는 북측에서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지역어의 속구조

제10~17차 공동회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겨레말큰사전》의 지역어 속구조와 기존 사전의 속구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겨레말큰사전» 지역어의 속구조

올림말[발음][활용형] ([원어명]원어) [품사] 《전문어》《문법정보》  
 뜻풀이 (지역명) || 예구 | 예문  
 [관련어] [참고어]  
 [형태분석 및 어원]  
 [변이형]  
 [붙임]  
 [갈래말]  
 관용구/속담  
 [삽화]

«표준국어대사전» 지역어의 속구조

올림말 [품사] [방언] 뜻풀이 (지역명).

예) 여수1 [명][방] ‘여우1’의 방언(강원, 경남, 전라, 충청).

«조선말대사전» 지역어의 속구조

올림말 [품사] (전문어) → 뜻풀이. (지역명).

예) 여수 [명] 여우. (경상, 충청).

구 분	기 존 사 전	«겨레말큰사전»	비 고
올림말	○	○	형태음소론적 표기
발음	×	○	필요에 따라 제시
활용형	×	○	필요에 따라 제시
원어	×	○	
품사	○	○	
지역	○	○	
전문어	×	○	
문법정보	×	○	
뜻풀이	○	○	
용례	×	○	제시하는 것이 원칙
관련어	×	○	
참고어	×	○	
형태분석	×	○	
변이형	×	○	
어원	×	○	
붙임	×	○	
갈래말	×	○	

관용구 와 속담	x	○	
삽화	x	○	

### 실례 1

#### 가투<sup>2</sup> [명]

별레 먹은 콩이나 팥. (전라) | 옛날이는 밥상 우그다가 콩 붓아놓고 {가투덜} 골라넣고 그렸제. [비슷] 준저리콩. [같은말][지] 동이. 두랭이. 아퀴.

### 실례 2

#### 피복쟁이 [피복쟁이, 피복쟁이/빼복쟁이] [명]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놀아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의 또래 아이들을 이르는 말. (전북) | 인제 점심때쯤 되니께 고삿질에서(고삿길에서) {피복쟁이들이} 뛰놀아.

[피+복(<벗-)+-쟁이]

[변이형] 깨복쟁이, 빼복쟁이.

### 실례 3

#### 헤치 [명] 《민속》

띠. (제주)

[갈래말] 쥐헤치, 쉬헤치, 범헤치, 툃헤치, 미리헤치, 베염헤치, 물헤치, 염헤치(염쉬헤치), 납헤치, 독헤치, 개헤치, 돛헤치

### 실례 4

#### 쌀구제기 [명]

껍데기에 쌀 같은 돌기가 솟아 있는, 거의 다 자란 소라. (제주) | 조쿠제기보담 {쌀구제기가} 커꼭 맛있주.(조쿠제기보다 {쌀구제기가} 크고 맛있지.) [참고] 민둥구제기, 조쿠제기.

[쌀+구제기(<구쟁기)]

[붙임] 제주에서는 소라 중에 가장 큰 것을 <민둥구제기>, 중간 것을 <쌀구제기>, 어린 것을 <조쿠제기>라고 부른다.

## 다. 남북 합의 새어휘 원고 현황

제17차 남북공동회의부터 제25차 공동회의까지 남북이 합의한 새어휘 원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9년	2014년	2015년	계
새어휘 합의 원고	5,000개	2,639개	17,361개	25,000개

## 5. 말뭉치 구축 및 정비

남측사업회에서는 새어휘 조사와 사전의 용례 제공을 위하여 2006년부터 말뭉치 구축 사업을 실시하였다. 북측에서 간행된 잡지와 중국의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지에서 간행된 잡지 및 국내 소설 등 문학작품의 말뭉치의 오류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하여 말뭉치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단위: 어절)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말뭉치 구축	262,000	8,000	3,000	27,000	300,000

## 6. 삽화 구축

세밀화는 《겨레말큰사전》에 삽화를 제공하고, 지역어 및 현장어 조사의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세밀화 제작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작성 목표	사업 결과	비고
~2017년	24,000점	9,250점	

## 7. 자료 관리

남측사업회에서는 사전 편찬에 필요한 남과 북의 문헌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전 편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자료를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사전 편찬에 활용하고 있다.

(2017. 12 기준)

구분	권 수	비고
구입 도서	11,060권	
제작 자료집	903권	
특수 자료	1,166권	북측 간행 문헌 자료
계	13,129권	

# 정보화 분과

## 1. 정보화분과 업무 개요

정보화분과의 업무는 프로그램 개발, 사전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전 편찬 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컴퓨터 관리 업무로 나뉜다. 현재까지 정보화분과에서는 사전 편찬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참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네트워크 구성 및 자료 관리를 위한 서버 구축, 컴퓨터 보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집필과 교열을 진행한 원고를 바탕으로 종이 사전 중간 결과물로서의 웹사전 출판을 준비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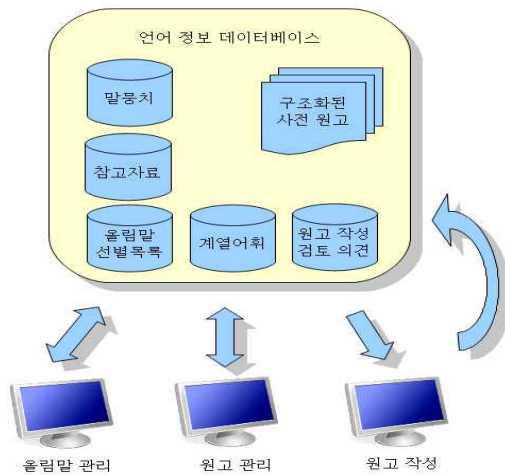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통합 사전 검색 프로그램</li><li>■ 자료 검색 프로그램</li><li>■ 원고 집필 프로그램</li></ul>
DB 구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통합자료 구축 및 관리</li><li>■ &lt;언어 정보 DB&gt; 유지 및 관리</li><li>■ 집필원고 DB화 작업</li><li>■ 집필원고 XML 파일 형식 변환 및 관리</li></ul>
사전 편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고 배분 프로그램 개발</li><li>■ 원고 통합 및 분리 프로그램 개발</li></ul>
서버 관리 및 네트워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전 편찬 시스템 유지 및 관리</li><li>■ 서버 및 인트라넷 유지 및 관리</li></ul>

### ○ 거래말 웹사전(가칭) 준비

- 집필 사전 원고 데이터베이스 변환 입력
- 사전 집필 시스템과 웹사전용 데이터베이스 연동 테스트

## 2. 사전 편찬의 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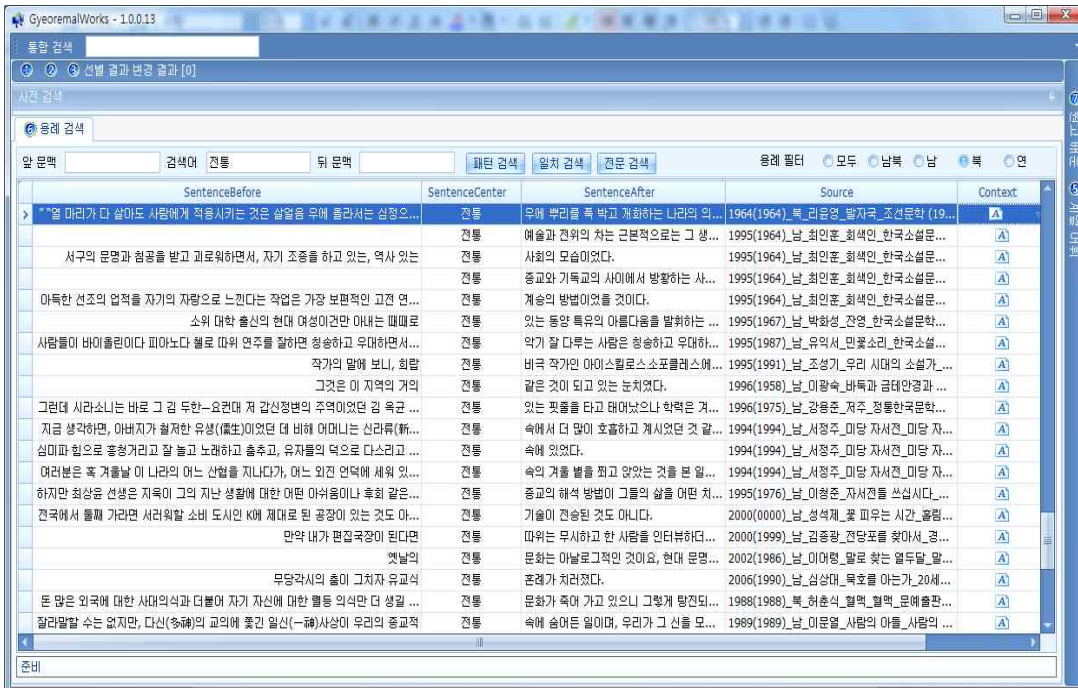
정보화분과에서는 종합적인 <<언어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사전 편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언어정보 DB를 활용한 입체적 집필 환경

### 3. 겨레말 자료 검색 프로그램

<겨레말 자료 검색기>는 사전 편찬 과정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울림말 선별 결과, 사전 검색, 계열어휘, 용례검색 등 사전 편찬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남북의 편찬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말뭉치 용례 검색기 실행 화면



#### 4. 원고 집필 프로그램

《겨레말큰사전》의 원고는 남과 북이 합의한 XML 형태로 인코딩하여 저장한 후 교환한다. 따라서 기존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 아닌 전용 집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를 집필하고 있다.

